

# 트럼프, '경선 압승' 대선행 고속 열차 탑승...전세계 '술렁'

### 다보스포럼서 우려 목소리...나토 탈퇴·우크라 전쟁 방관 제기도 무역·안보·이주민 문제 등 격변 예고...한반도 정책 변동 가능성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첫번째 경선으로 15일(현지시간) 치러진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나 국제사회의 불안감도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2위와 무려 30%포인트 가장 차이는 역대 최대 격차 승리로 정권 탈환을 위한 떠들썩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각각은 설마했던 트럼프 재집권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새삼 자각하며 술렁이는 모습이다.

첫 관문을 가볍히 통과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본선행을 일찌감치 굳히고, 오는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리턴매치'를 벌인다는 구상인데, 최근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흐름이다.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로 그동안 막연한 가능성에 머물렀던 '트럼프 2.0'이 한층 가시권에 들어온, 국제사회는 재도래할 트럼프 시대가 몰고올 파장을 경계하며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부터 4년의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전력이 있다. 이런 그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서 180도 방향 전환을 할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국제관계부터 무역, 안보, 기후변화, 이주민 문제 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전방위적인 격변을 겪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민주주의, 안보 등에서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기에 동맹 관계에 균열이 난 전례가 있는 만큼 벌써부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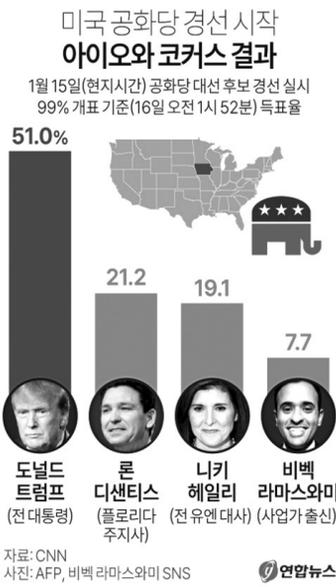
영국 해외정보국(MI6)의 리처드 디어러브 전 국장은 지난 15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려 할 것이라며, 그의 정권 탈환이 영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복귀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알렉산더 드코 벨기에 총리는 아이오와 코커스가 끝난 직후 유럽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말에 백악관에 다시 복귀한다면 유럽은 홀로 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독일 정가에서도 트럼프의 복귀를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기민당의 중경 정치인인 노르베르트 뢰트겐 의원은 "독일 정부는 트럼프의 대통령 복귀를 전보다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정·재계, 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가 나온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도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트럼프 집권 1기에 그와 꺾거리온 관계를 형성했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16일 몬트리올 상공회의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퇴보이자 많은 고통과 분노를 반영하는 포퓰리즘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무역과 기후 변화 등의 의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의 경찰'을 자임, 국제질서를 뒷받침해온 미국의 리더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실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미국이 더는 "호구가 되지 않겠다"며 고립주의를 표방, 유럽 동맹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며 서방 공동 방위의 기본 틀인 나토 탈퇴를 위협한 바 있다.

그런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번에는 나토를 아예 탈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바이든의 개입주의를 철회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발을 빼려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핵 문제와 한미일 3자 안보공조 등 동북아시아 안보에도 급격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국들 역시 11월 미 대선을 주시하고 있다.

재임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담판하며 '톱 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핵동결을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거래를 구상하고 있다고 미 폴리티코는 지난 달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으나, 북핵 문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그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환호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앳킨슨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을 찾은 지지자들이 그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환호하고 있다. 전날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압승한 트럼프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승리할 경우 대세론이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석탄수출 1위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조정

###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에 화력발전 의존도 올라가

석탄 수출 세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져서다.

1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025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당초 정부 목표치인 23%에서 17~19% 수준으로 4~6%포인트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기준 인도네시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신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3%다. 당초 목표대로라면 관련 비중을 2022년 12.3%에서 지난해 17.9%까지 5.6%포인트 끌어올렸어야 했지만 불과 0.7%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더딘 것은 그만큼 투자가 부족해서다.

인도네시아는 선진국 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계획이었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과 200억달러(약 26조9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계약을 맺고 석탄화력발전 감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JETP의 자금 지원이 늦어지자 인도네시아 에너지부는 지난해 11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보다는 탄소 포집 기술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전략을 수정한 바 있다.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만큼 석탄 의존도가 올라갔으며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예멘 반군 후티, 홍해서 그리스 화물선 미사일 피격

### 미군, 추가 무력 대응 나서

홍해 남쪽 예멘 알바다에서 그리스 화물선에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미사일에 맞았다고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해상 보안업체 암브레이 대변인은 "물타 선적의 그리스 소유 벌크선이 홍해 남쪽에서 북상 중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암브레이는 이 선박이 가지자자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전력이 있으며 화물을 실지

않고 수에즈 운하로 향하다가 피격 뒤 항로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리스 당국은 공격받은 화물선의 선명은 '조그 라피아호'로, 우크라이나인 20명과 필리핀인 3명, 조지아인 1명이 승선했다고 확인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후티는 이번 미사일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

후티는 성명을 통해 "우리 해군이 반복적으로 사격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선박이 응답을 거부했다"며 "이에 선박을 목표로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해의 항행 위기가 지속되자 미군은 후티를 상대로 추가 무력 대응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후티의 대함 탄도미사일 4발을 파괴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미국과 영국이 16일에도 예멘 중부 알바다주를 공습했다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후티는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